

가정 상담

4 • 새 해 메시지

6 • 특집 | 이태영 선생님 육주기

7 • 특집 호주제 폐지 현재 최종 변론
호주제 폐지는 민주화의 마무리이며
시대적 당위입니다

10 • 특별기획 | 부부재산제 개정 ②
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 결합해야

14 • 칼럼 결혼과 인생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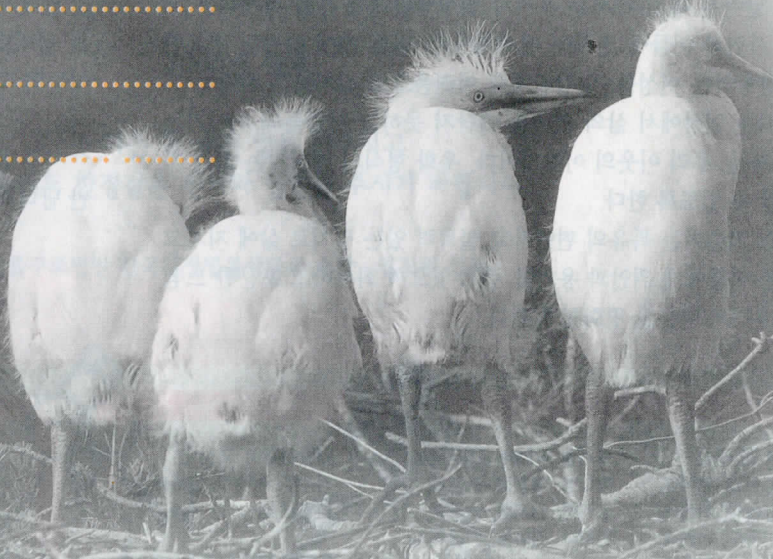
15 • 인터넷 상담

16 • 상담소 소식
지부 소식

17 • 상담통계

18 • 지부소장 새해인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부부평등과 자녀·노인의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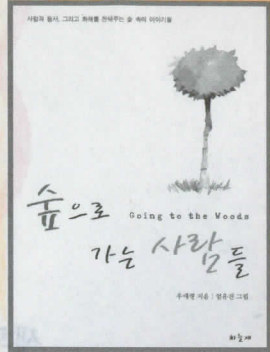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건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1

2005

숲으로 가는 사람들

우애령 지음, 엄유진 그림.
하늘재, 2004년 발행.



유명한 심리상담자 M. 스캇 펙은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삶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라고 단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소설가이며 상담전문가인 우애령 박사의 저서 「숲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상담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24 편의 사연과 편지, 시를 담은 독특한 이야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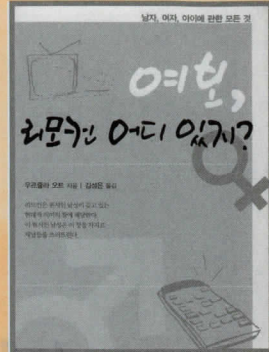
〈숲 속의 현자〉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가장 빛 보증으로 파산한 할머니, 고아와 연애를 하는 딸 때문에 실의에 빠진 어머니, 폭우로 인해 엄마와 누나를 잃은 소년, 성폭행을 당해 어둠의 시기를 보내다가 미국에서 몇십 년만에 귀향하는 여인 등 불행한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숲 속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 함께 마시는 차 한잔으로 마음의 고통을 지우고 축복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숲을 나온다 어쩌면 숲 속의 현자는 바로 우리 자신일 것이며 마음 속 숲길을 따라가 보면 깊은 내면의 세계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은이는 전한다

〈숲으로 날아온 편지〉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되는 고민을 담은 사연과 이들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결혼 속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여성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다 우화 형식의 메시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특유의 편안하고 설득력 있는 필치로 삶에 지치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화사하고 포근한 느낌의 삽화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여보, 리모컨 어디있지?

우르줄라 오토 지음, 김성은 옮김.
지식의 날개, 2004년 발행.



아이들에게 소녀가 등장하는 양성평등이 구현된 그림 책을 보여주고, 환경오염으로 중독된 개구리 이야기를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며, 사회문제를 다룬 디즈니 만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아내는 걱정스레 남편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준 게 아닐까요?” 그는 말한다 “리모컨 어디 있지?” 이러한 선문답 같은 대화가 이 책의 주제이다 여자의 진지함에 대한 남자의 반응은 무심함이며 그 다음의 장면은 여자와 남자가 다투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가족관계에 대해 많은 글을 쓴 이 책의 지은이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매우 다르며 이것을 인정해야만 다투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은이 자신의 생활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이,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와 에피소드 등을 통해 남녀 상호간의 모순과 특징, 그리고 갈등에 대해 위트 있고 신랄하게 분석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아이의 심리도 분석하면서 가족 체제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특성을 살피면서 가족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서구 문화권의 차이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남녀의 근본심리는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김동자 도서실장

새 아침의 창을 열며

아직 한 겨울의 추위가 매섭지만
얼어붙은 땅 밑 저 어딘 가에서부터
서서히 봄의 기운이 움터 오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온 땅을 덮어도
다시 아침이면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압니다

거센 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어도
봄의 햇살 아래 녹아내릴 것임을 믿습니다

상담소의 지나온 길이
그저 평탄하고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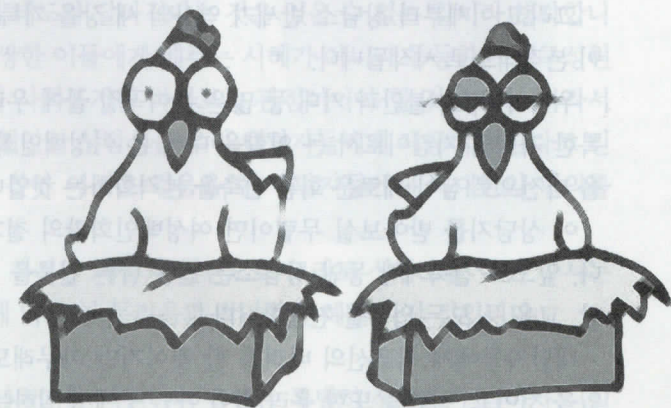
그러나 물이해와 때로는 질시와 시련 속에서
상담소는 더 건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가운데
묵묵히 한 방향으로 걸어 왔으며
걸어온 자취가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의 평등과 행복을 위해
잠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더 넓고 편안한 길을 닦으려고 합니다

2005년 새해

뜻 하는 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상담소에도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임직원 일동



2004년 12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순임, 강신일, 강영봉,
오영순, 유향자, 이상숙,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고옥주, 김인숙,
김정혜, 노희자, 박선화,
백미도, 심무순, 안현숙,
유문숙, 임현정,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강미영, 엄희정, 조경희,
김지현, 김지희, 방수경,
민경아, 김미림, 서경희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손성락,
최은희, 이상국, 손현태,
김병주, 강윤미, 김경환,
이호창, 이길연, 양진호,
곽용석, 최승재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정상일, 고미진, 심미숙,
천정환, 권성희 변호사 님

후원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선주, 이선주, 윤준옥,
김영신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고영소, 손현태,
김병주, 강윤미, 천정환,
배용선, 공혜진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싹희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